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226호 관련)

2021. 11. 3.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11월 3일(수) 14:05~20:05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226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당사는 주석미기재 관련 위반행위 자체는 모두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림. 다만, 당사 임직원 어느 누구도 어떤 의도나 고의를 가지고 위반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함. 당사는 반도체장비 개발에 전념해온 중소제조회사로서 오로지 기술력 하나에 집중한 까닭에 회계업무를 다룸에 있어 전문인력과 지식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 또한, 공시 담당 직원 역시 해당 업무 경력과 전문성이 충분치 못하여 본 건과 관련된 모든 회계쟁점을 깊이 있게 따져보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만약 당사 임직원이 (주)○○○과의 거래가 연결재무제표 주석기재사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주석사항에 기재하여 공시하였을 것임. 실제로 저는 2019년경 업무담당자로부터 내부감사인 자문을 구한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그 의견에 따라 (주)○○○을 기타특수관계자로 인식하여 주석기재를 자체적으로 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사업보고서에 (주)○○○의 거래내역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으로 공시하기도 하였음. 이런 사실은 당사가 (주)○○○과의 거래를 감추려던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임. 또한, 당사와

(주)○○○과의 거래는 당사의 핵심역량이자 고유업무인 자동화설비제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기간 동안 (주)△△△의 영업이익률 등 지표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주)○○○과의 거래 이후 상승효과를 얻어서 업종 내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음. 이러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당사와 그 주주들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 이를 감추어서 당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역시 전혀 없었던 점을 살펴 주시고 당사와 (주)○○○과의 거래를 기업실적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존재하였다는 것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당사는 금번 사건을 통하여 회계자료 등 공시사항에 대한 실수 역시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음. 금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사 내부통제 조직의 정비와 회계 및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당사가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로서 첨단기술개발을 선도하여 국가산업과 경제발전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진술인) 법률대리인임. 금감원의 조치사항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대주주인 ○○○ 대표가 두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을 설립하여 위법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고의로 재무제표주식에 특수관계자 거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금감원이 지적하는 (주)○○○ 설립과 BW 발행은 대부분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는 (주)△△△과 (주)○○○ 양사에 매입·매출 거래만 존재함. 따라서 (주)○○○ 설립 및 BW 발행 등이 이루어진 2013년도에 피조치자가 주식공시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금감원의 원조치는 유지될 수 없다고 사료됨. 금감원은 (주)○○○과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누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거래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함. 위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사항임. 과연 (주)△△△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에서 신주인수권만 따로 인수한 행위가 거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으며, 더욱이 본 건 신주인수권은 ○○○○○과 (주)○○○ 간의 거래에 불과한 것이지, (주)△△△과 (주)○○○ 간의 거래가 아님이 명백함. 금감원이 지적하는 신주인수권은 ○○○○○이 자체 판단으로 (주)○○○에게 양도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직접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주)○○○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은 취득 당시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대량보유 상황보고 공시가 되어 있음. 가사, 2013년도에 (주)○○○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이 주식기재대상인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2013년 한 해만 공시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매년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 회계기준상 과연 (주)△△△과 (주)○○○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음. 금감원은 (주)○○○이 ○○○ 대표의 두 아들 및 회사 임원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서 특수관계자로 의율하고 있습니다만, (주)○○○ 설립 당시인 2012년도는 IFRS가 도입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지배력 판단에 혼란스

러운 시기였음. 또한, (주)△△△과 (주)○○○ 상호간에는 아무런 지분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들 회사 간에 특수관계자가 성립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시기였음. ○○○ 대표를 비롯한 개인들이 두 회사 중에 적어도 1개 회사에 대해서는 지배력이 인정되어야만 특수관계가 성립되는데 우선 (주)○○○을 설립한 4인 주주는 (주)△△△ 근무 당시의 직급을 보면 부장 또는 미등기 집행임원이었음. 따라서 (주)○○○을 설립한 4인은 (주)△△△ 및 (주)○○○ 모두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사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다음으로 (주)△△△의 최대주주인 ○○○ 대표이사의 두 아들을 보겠음. (주)△△△의 경우 ○○○ 대표만 지분을 가지고 있고 두 아들은 지분이 없음. (주)○○○의 경우 ○○○ 대표는 지분이 없음. 두 아들이 잠재적인 워런트(warrant)만 보유한 상황이고, 아직도 행사하지 않았음. 만일 행사가 된다고 전제할 경우 특정 1인이 (주)○○○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함. 과거 3년간 특수관계자 주식 미기재로 조치한 사례를 정리해보았는데 특수관계자 주식기재 누락으로 ‘고의’로 조치한 사례는 몇 건 되지 않음. 그마저도 대부분 재무제표 본문의 왜곡이 함께 발생한 건임. 이처럼 특수관계자 주식기재 누락만으로 ‘고의’로 조치한 사례가 거의 없음에도 본건을 ‘고의’로 조치한 것은 ○○○ 대표가 (주)○○○을 불법적인 승계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은 ○○○ 대표의 회사가 아니며 ○○○을 비롯한 4인의 회사로서 승계와는 무관한 회사임.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기준상 (주)○○○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더라도 2013년 당시 회사관계자는 이렇게 어려운 회계기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으로 회계기준의 위반을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고의’ 조치는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진술인) 비정상적인 거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음. 기술을 잘 알고 특허를 100여 개 이상 직접 개발한 ○○○ 이사가 있는 (주)○○○에서 이런 것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력이나 품질이나 대응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봐서 (주)○○○을 선택했음. 이렇게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임. 2019년에 (주)○○○이 보유하고 있는 (주)△△△의 지분이 20%에 육박하면서 특수관계자로 공시를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변동은 없었으며 (주)○○○과의 거래로 인해서 어떤 문제도 없었고 최고 영업이익률을 계속 달성했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두 회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 주주, 임직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 (위원) 회사 측은 본건에 대해서 금감원이 선임견 내지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금감원은 어떤 근거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주)○○○을 설립했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 (보고자) 최초 설립할 때 회사 임원 3명과 직원 1명, 총 4명이 했으며 (주)△△△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했음. 최초 (주)○○○ 직원 중 5명이 (주)△△△에서 건너갔으며, (주)△△△

공장 내의 공간을 임대해 줬고 유형자산을 (주)○○○에 이전시켰음. 그다음에 (주)○○○에 대해 BW를 발행해서 ○○○ 대표이사의 두 아들이 90%의 잠재적 의결권을 갖도록 했음.

- (보고자) 저희는 (주)○○○이 회사 승계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선입견을 갖지 않지만, 회사는 어떤 이유로든 (주)○○○을 만들었고 자녀들에게 BW를 발행함으로써 이용했음. 저희는 그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설립 당시의 목적을 저희가 이것이라고 특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그 이후의 주주구성과 거래라든지, (주)○○○이 (주)△△△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들을 볼 때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역할에 이용되었다고 보고 있음.

- ▶ (진술인) 2012년 상반기에 ○○○ 이사와 면담 중에 (주)○○○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 ○○○ 이사의 얘기로는 퇴사와 함께 자기사업을 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그 당시에 표명했었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주)○○○의 주주들은 모두가 회사내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 이사 같은 경우에는 주력상품인 디스펜서 개발을 총괄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인력이었기 때문에 제가 몹시 당황했었고, 어쨌든 이들을 회사에 묶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용인할 수밖에 없었음. 그다음에 5명의 직원이 그쪽으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예전에 리니어 스테이지를 내재화해 보려고 개발한 적이 있었습시다만, 당시에 그 5명이 실력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패를 했었음. 그래서 저희가 그 인원을 해고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주)○○○에서 데려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옮겨 갔음. 그다음에 공장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리니어 스테이지를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양사 간의 물류관계나 주문 관계, 또 (주)○○○에서 리니어 스테이지 모듈을 저희 장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착해 준다는 부분까지 책임져 준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대를 줬던 것이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장 임대를 해 주었던 것은 아님.

○ (위원) 금감원에서는 (주)○○○이 BW를 발행한 것도 경영권 승계의 목적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진술인) (주)○○○ 설립 초기에 자본금 자체가 너무 빈약했고, 특히 운용자금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운용자금에 대한 긴박성이 많이 대두되었음. 저희 입장에서는 워낙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든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BW와 관련해서도, (주)△△△의 BW 인수 요청에 대해 납품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2차 발행도 회사 운영과 (주)△△△의 BW 발행 목적에 의해서 발행을 하게 되었음. 개인적으로 핵심적인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대표이사의 두 아들이 저희에게 워런트(warrant)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음. 그 당시 ○○○, ○○○씨

는 학생으로서 워런트(warrant)를 행사해서 실질적으로 기술 위주의 (주)○○○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도 안 되었고 그래서 당연히 발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주로서 만약 워런트(warrant)를 발행한다면 저는 퇴사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었음.

- ▶ (진술인) 참고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260개로 이쪽 분야의 Global Top-Tier 기업 중 하나임. 그 중 102개를 ○○○ 이사님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였음. 이렇게 사내에 있는 주요기술 핵심인력이 분사를 통해서 벤처를 만들 때 인력과 물적 자원을 지원해서 거래관계를 계속 이어나가 상호 Win-win하는 사내 벤처 사례는 상당히 많이 보실 수 있음. 승계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님. 워런트(warrant)부분도 마찬가지임. 워런트(warrant) 행사해서 두 차례 분들이 대주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은 ○○○ 이사 없이는 운영될 수 없는 회사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BW는 ○○○○○이 인수했음. 워런트(warrant)를 (주)○○○에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은 ○○○○○임. 저희가 발행하면서 ○○○○○과 워런트(warrant)를 누구에게 처분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적 없음.

- (보고자)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세 가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회사가 발행한 BW사채는 이미 발행 이전에 ○○○○○과 BW에 대한 매수인 지정이 되어 있었음. 두 번째, 지금 대리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2차 BW 발행의 목적을 (주)△△△ BW 인수자금조달이라고 이미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도 사실과 다름. 세 번째, ○○○ 이사는 (주)○○○에 기술을 이전한 적이 없음. ○○○ 이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주)○○○이 제조하는 리니어 스테이지의 기술이 아님.

▶ (진술인) 사전에 ○○○○○과 (주)△△△ 간에 매수인 지정이 되어 있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그 당시 회사의 입장에서는 신사옥을 건립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이 있어서 자금을 빌리는 것이 제일 우선 과제였음. 하지만 ○○○○○ 입장에서 BW 발행을 요청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워런트(warrant)는 나중의 문제였음. 그런데 ○○○○○ 같은 경우에도 100% 워런트(warrant)를 가질 생각은 아니었고 20%만 가지고 나머지는 누군가한테 넘기려했는데 그것을 회사에 먼저 제안을 했음. ○○○ 대표에게 한 70% 정도를 받을 것이냐 했는데 ○○○ 대표는 그 당시에 그것을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우호적인 사람한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직원들이 만들었던 (주)○○○을 매수인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것임. (주)○○○은 그 당시에 운영자금도 부족한 회사였기 때문에 (주)○○○ 입장에서는 운영자금 2억 원을 추가로 더 조달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음.

▶ (진술인) 회사에 워런트(warrant)를 인수할만한 대상자가 누가 있는지를 문의해서 회사에서 (주)○○○을 의견개진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호 간에 확약한 바가 없음. ○○○○○이 다른 사람한테 워런트(warrant)를 매각한다고 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음. 매수청구권은 엄연히 다르고 법률적인 의미를 금감원에서 오해한 것임.

- (보고자) ○○○○○의 여신승인신청서 내에 있는 내용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조건, 기타조건, 70%는 최대주주 혹은 최대주주가 지정한 자 앞으로 액면가액(par value) 5%에 매각한다는 내용은 BW를 발행하기 전에 이미 협의하고 약정했다는 것을 의미함.
- (위원) 두 회사의 특수관계자 여부가 상충되는데, 회사 측에서는 당시에 특수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감원은 대표이사의 아들 두 분이 (주)○○○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기 때문에 두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 (진술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아버지인 ○○○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임. 하지만 ○○○, ○○○은 이미 성년에 도달했고 이 BW 인수자금도 정상적인 증여를 받은 돈으로 구입했음.
- (보고자) 일단은 ○○○과 그 일가가 (주)△△△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주)○○○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설령 지배력이 없는 유의적 영향만 있다고 하더라도 (주)△△△과 (주)○○○의 관계 자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여서 그 둘 자체만으로도 특수관계자임. 이것은 기준서에 명확해서 혼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회계사는 아주 드물 것 같음.

▶ (진술인) 그렇다면 당시 ○○회계법인이 5%보고를 충분히 확인하고 2013년 재무제표를 감사했는데 왜 (주)○○○과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보고서 ‘적정’ 의견을 냈는지 되묻고 싶음.

- (보고자) 저희가 ○○회계법인과 문답을 하였는데 회사와 ○○○○○○ 간에 BW 매수인 지정과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데 ○○회계법인에 이 자료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회사에서 답변을 받지 못했었고 만약에 회계감사 도중에 이 자료를 받았다면 특수관계자 여부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했을 것이고 관련된 내용을 공시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 (위원) 특수관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지배력, 공동지배력, 유의적인 영향력, 주요 경영진, 이것이 둘 중 한쪽에 대한 지배력, 공동지배력이 있으면 다른 쪽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더라도 우리가 특수관계자로 간주를 함. 결국에는 ○○○과 두 아들인 ○○○, ○○○가 (주)○○○에 대해서 지배력이 있으면 이것은 특수관계에 해당이 됨. 그런데 변소하시기를 90%는 90%인데 자녀 둘이 50%, 40% 나눠 갖고 있어서 40%와 기존주주 10%를 합치면 5대5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배력이 아니더라는 주장은 논리가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닌지?

▶ (진술인) 회계기준상으로 봤을 때 개인에 대한 규정을 내릴 때 개인과 가까운 가족은 모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에 적용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음. 이것은 기업에 대한 경우이기 때문에 ○○

○과 ○○○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이라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둘을 각자 판단해야 된다는 것임.

- (보고자) 일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문단9에서 지배력을 보는 대상을 개인이나 개인의 가까운 가족을 합쳐서 보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저희는 ○○○ 대표와 ○○○, ○○○를 합쳐서 보는 것은 기준서대로 해석한 것임.

- (위원) 2013년 7월25일에 BW를 발행한 이유가 그 당시 본사를 이전하고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음. 그런데 그 자금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계속 2.5%의 낮은 자금을 썼지만 결국에는 그 70%를 (주)○○○이 인수를 했고, (주)○○○의 대주주는 두 아들임.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를 한 묶음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같은 주머니 아닌지?

- ▶ (진술인)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일단 BW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 워런트(warrant)가 행사됐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 BW 발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음. (주)○○○이라는 회사는 분명히 (주)△△△의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였고 별도로 운영되는 회사였음. 하지만 (주)○○○이 계속 리니어 스테이지 기술이 완성이 된다고 하고 (주)△△△에 전량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주)△△△ 입장에서는 (주)○○○을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은, 독립적인 회사라는 약점이 있었음.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자금조달을 (주)○○○에서 요청할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장래에 담보할 수 있는, 이를 컨트롤

롤(control)할 수 있는 뭔가를 두기 위해서 BW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발행할 당시에 (주)○○○의 주주인 직원들이나 회사의 경영진도 이 워런트(warrant)는 그런 담보목적으로만 생각했지, 행사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음.

- (위원) 비정상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리니어 스테이지 시스템을 □□□에서 받다가 (주)○○○으로 돌리고 다음에 ☆☆☆(△△△ 종속회사)으로 다시 바꿨는데, 왜 ☆☆☆으로 또 바꿨는지?

▶ (진술인) (주)○○○의 볼륨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져 가는데 있어서 조금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음. 리니어 스테이지 거래에 있어서 일방적인 납기요청이나 가격 등의 문제로 마찰이 생긴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판단 하에 이참에 R&D는 몰라도 생산만큼은 의존도를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또한 2019년도에 많은 물량이 출하되다 보니까 (주)○○○ 역시도 납기충족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발생하기도 했었음. 마침 제가 Pneumatic 사업부를 단독 법인으로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자회사에서 생산 부분을 흡수한다면 (주)○○○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납기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제가 요청을 했었음.

- (위원)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배임소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건에 대해 금감원은 설명바람.

- (보고자) 제품별 단가가 아니라 (주)○○○이라는 회사가 인적·물적 지원을 받아서 2012년에 설립되어 2013년에 주로 거래를 한 회사인데 회사보다 높은 이익률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단가조정 없이 원재료를 구매했다고 판단한 것임.
- (보고자) 저희가 2017년, 2018년 24개 제품의 단가를 비교했음. 저희가 판단하기에 생산이 지속되면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서 생산단가가 더 낮아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동일한 가격으로 2018년도에 매입을 했음. 물론 납품업체가 더 높은 이익률을 가져갈 수도 있음. 그렇지만 20%대와 40%대의 이익률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이익률 차이라고 봤음.
- (위원) 양쪽 모두에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음. (주)○○○이 만드는 리니어 스테이지 시스템 관련 단가하고 영업이익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그 당시에 회사에서 리니어 스테이지 시스템을 자체생산도 가능했다고 하는데, 자체생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주를 준 것인지?
- ▶ (진술인) 저희 자회사 쪽에서는 자체생산이 전혀 가능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생산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에 (주)○○○이 既개발해서 가지고 있었던 도면, 기타 조립도나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원 받아서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위원) (주)○○○에서 만든 리니어 스테이지 시스템 중에 다른 쪽에 납품하는 경우가 있는지?

▶ (진술인) 지금 (주)○○○에서 납품되는 제품은 전부 특수한 설계임. 회사가 요구하는 특수사양에 대한 설계를 진행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는 납품할 수 없음.

○ (위원) (주)○○○ 매출액 중 (주)△△△ 매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 (진술인) 80% 정도임.

○ (위원) 나머지 20%는 어디서 발생하는지?

▶ (진술인) 20%는 자동화업체 중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특수 설계 쪽으로 납품하고 있음.

○ (위원) 금감원 자료에 보면 재무담당임원인 ○○○씨가 (주)○○○ 설립 직후 상법 등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 여부를 검토했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결과가 어땠는지?

▶ (진술인) (주)△△△의 직원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얘기하는 주요경영진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직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나 ○○○이 워런트(warrant)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채권자의 역할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음.

- (위원) 신주인수권 금액 70억 원에 대해서 변호인은 '재무제표에 신주인수권 보유자를 공시하도록 하는 명시적 회계기준 및 감독지침 부재'라고 주장하고 있음. 금감원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0억 원이 지적이 되어야 된다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신주인수권 관련 지적금액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BW 발행 전에 그것이 사전에 이미 약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과 (주)○○○ 간 신주인수권 거래약정은 기업회계기준상 제1024호 문단21, 9에 따라 주식에 공시해야 되는 중요한 정보임.
- (위원) 잘 아시다시피 IFRS는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해서 판단함. 그것에 기초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다음으로 특수관계자 여부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주)△△△과 (주)○○○은 서로 상호 간에 유의적 영향을 보유하고 있음. 유의적 영향을 보유한다는 것이 특수관계자임. 예를 들어서 기업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거래,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매출거래가 중요한 거래임. 그리고 경영진의 상호교류, (주)○○○의 대표이사 ○○○는 (주)△△△의 전 연구담당 임원이었고 (주)○○○의 감사는 전 회사 직원도 있었음.
- (위원) 우리가 2012년, 2013년 그 시점의 지배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임. 그 당시 IFRS에 대한 우리의 해석능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력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에 있

어서 이런 것을 상당 부분 동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음. ‘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기에 5개가 열거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회사와 관련해서 기업과 피투자사 사이에 중요한 거래가 있고, 경영진의 상호교류가 있고 필수적·기술적 정보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특수관계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그 부분이 지금 대리인측에서 검토가 안 되어 있음. 다음으로 위법동기임.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 거래를 위법동기로 보고 있는데, 왜 (주)○○○을 분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현재 (주)○○○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보다 조금 더 정치(精緻)하게 작성하셔서 제출 바람.

○ (참여자) (주)○○○이 세워지고 나서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 (주)○○○에서 얻은 수익은 어떻게 분배가 되었고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 (진술인) (주)○○○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익금이 생겼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자사 공장을 취득하고 기업인수를 생각하고 있었음. 공장과 기업인수를 위해서는 이익금 축적이 좀 필요했던 것임. 저희가 단순히 이익금을 놔두는 것보다는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동의를 했고 대표이사께서 그나마 모르는 사업보다는 (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동의를 했었음.

- (참여자) 그렇다면 향후에라도 네 분의 주주께서 이익의 귀속 주체가 될 생각은 가지고 있으셨던 것인지?
- ▶ (진술인) 그것은 하겠지만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공장과 기술개발에 있어 전환이 필요했음.
- (위원) 이러한 BW 발행이라든가, (주)○○○과 (주)△△△의 관계에 대해서 감사인에게 정보를 왜 제공해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이슈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감사인한테 이러이러한 거래와 약정이 있는데 이런 것은 회계처리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고 문의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러한 정보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외부감사인한테 제공이 안 되었다는 것임.
- ▶ (진술인) 제가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과 (주)△△△ 간에는 아무런 지분관계가 없었음. 워런트(warrant)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지분관계라고 생각을 못했음. 그리고 워런트(warrant) 부분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5% 공시가 이미 되어 있음.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것을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주)○○○이라는 회사가 신생 회사로 성장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숨길 이유가 없었던 것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될지조차도 인식을 못해서 감사인과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음.
-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

리는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두 분과 관련해서 진술인 쪽에서 이 두 분을 완전한 성인인격체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경제적인 판단을 하기에 아직까지는 미숙한 존재로 보는지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주)○○○의 2차 BW 발행 당시에 이미 매수인 약정되어 있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금감원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함. 왜냐하면 진술인 쪽에서 만든 자료에 7월15일에 2차 BW를 발행하면서 (주)△△△ BW 인수자금 조달이라고 2차 BW 발행의 목적으로 적시를 하였고 7월25일에 회사는 BW 발행을 했음. 열흘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리 BW의 용도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매각 과정에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관계 공시를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하필 (주)○○○에서 종속회사인 ☆☆☆으로 납품업체가 옮겨짐. 시기상 이렇게 된 것이 2019년도에 자발적으로 특수관계 공시를 한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금감원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